

ICT 분야 벤처캐피털 투자 현황

■ 손가녕*

1. 서론

본고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KCVA) 연보 등을 사용하여 ICT 분야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 현황을 분석한다. 2016년 벤처캐피탈의 신규 투자는 전년대비 3.1% 증가한 2조 1,503억원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16년 신규투자 증가율은 24.1%p 감소하며 수년간의 급증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이었다.

업종별로는 바이오/의료 분야가 2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업력별로는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3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ICT 제조 및 서비스는 전체 신규투자의 23.4%를 차지하며, 게임을 포함할 경우 ICT 분야의 비중은 29.5%까지 증가한다.

하지만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가장 활발한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초기기업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본문에서는 도표와 그래프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 위촉연구위원, 043)531-4142, rotersonne@kisdi.re.kr

2.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1) 벤처캐피탈 투자 추이

2016년 벤처캐피탈의 신규 투자는 전년대비 3.1%(645억원 증가한 2조 1,503억원을 기록하였다.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는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크게 감소했으나 이후 정부의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그러나 2016년에는 신규투자 증가율이 3.1%에 그쳐 전년대비 24.1%p 감소하며, 수년간의 급증 추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을 보였다.

〈표 1〉 연도별 벤처캐피탈 신규투자 추이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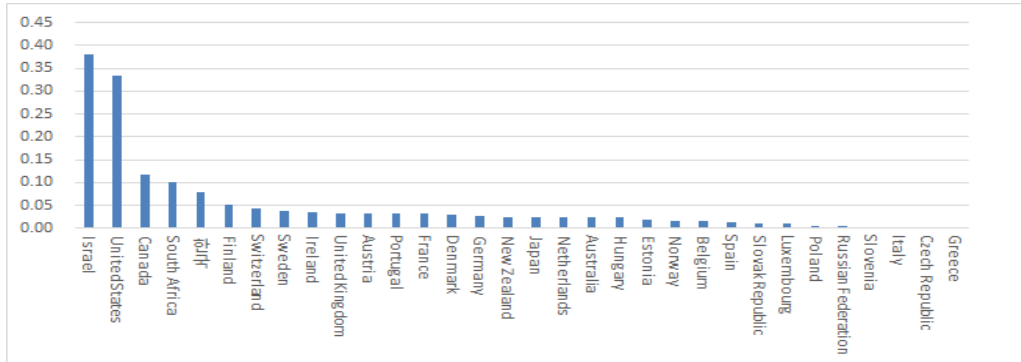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9,917	7,247	8,671	10,910	12,608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증감률	35.2	-26.9	19.7	25.8	15.6	-2.2	12.3	18.4	27.2	3.1

출처: KVCA YEARBOOK(2017)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액 비중은 약 0.08%로 32개 OECD 국가 중 5위 수준으로 낮은 편이 아니다. OECD 평균은 0.05%이며,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액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로 0.38%이다. 다음으로 미국 0.33%, 캐나다 0.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 '16년 GDP 대비 벤처캐피털 투자 비중

(단위: %)



출처: OECD(2016),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6"

국내 2016년 벤처캐피털 신규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바이오/의료가 4,686억원으로 전체 신규투자의 2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ICT서비스 18.9%, 영상/공연/음반 12.5%, 유통/서비스 11.6% 등의 순이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ICT제조는 20.7%에서 4.5%까지 그 비중이 감소하였고, 영상/공연/음반은 19.8%에서 12.5%로, 전기/기계/장비는 12.8%에서 9.9%로, 화학/소재는 7.3%에서 7.0%로 비중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바이오/의료는 8.1%에서 21.8%로 급증하였고, ICT 서비스는 14.6%에서 18.9%로, 게임은 2.8%에서 6.6%로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종합하면, 과거 주력 투자업종이었던 ICT제조와 전기/기계/장비의 비중은 급감했지만 정보통신분야에 집중되었던 투자업종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 업종별 신규투자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ICT제조	1,521	1,917	1,228	1,147	1,860	1,754	2,099	2,955	1,951	1,463	959
ICT서비스	1,072	788	690	556	804	892	918	1,553	1,913	4,019	4,062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기/기계/장비	940	1,655	882	1,681	2,141	2,966	2,433	2,297	1,560	1,620	2,125
화학/소재	533	1,165	883	1,055	1,064	1,266	1,395	989	827	1,486	1,502
바이오/의료	596	585	400	638	840	933	1,052	1,463	2,928	3,170	4,686
영상/공연/음반	1,455	1,498	1,370	1,345	1,733	2,083	2,360	1,963	2,790	2,706	2,678
게임	202	555	334	771	945	1,017	1,126	940	1,762	1,683	1,427
유통/서비스	732	1,316	852	888	954	1,270	608	1,092	2,046	3,043	2,494
기타	282	438	608	590	569	427	342	593	616	1,668	1,570
합계	7,333	9,917	7,247	8,671	10,910	12,608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출처: KVCA YEARBOOK(2017)

업력별로는 초기단계(설립 후 3년 이하) 기업에 대한 투자가 7,909억원(26.8%)으로 전체 신규투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초기와 중기단계 투자는 각각 5.7%p, 0.8%p 증가한 반면, 후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는 6.5%p 감소하였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기단계 투자는 30.3%에서 36.8%로 증가하였고, 중기단계는 50.7%에서 28.7%까지 감소하였다. 그리고 후기단계 투자는 18.9%에서 34.5%로 증가하였다. 2006년과 비교할 경우, 후기단계의 투자 비중이 급증한 것은 벤처캐피털 투자의 보수화 경향을 반증한다.

〈표 3〉 업력별 신규투자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초기	2,224	3,650	2,908	2,476	3,192	3,722	3,696	3,699	5,045	6,472	7,909
중기	3,721	3,774	2,553	2,601	2,904	3,296	3,296	3,259	4,069	5,828	6,156
후기	1,388	2,493	1,786	3,594	4,814	5,590	5,590	6,887	7,279	8,558	7,438
합계	7,333	9,917	7,247	8,671	10,910	12,608	12,608	13,845	16,393	20,858	21,503

출처: KVCA YEARBOOK(2017)

ICT 분야만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ICT제조 및 서비스가 전체 신규투자의 23.4%를 차지하며, 게임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29.5%까지 증가한다. ICT제조업의 세분류 비중은 통신방송장비가 40.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반도체/전자부품 38.1%, 영상음향기기 11.7%, 컴퓨터/주변장치 9.9%의 순이다. ICT서비스업의 세분류 비중은 소프트웨어가 59.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보서비스 38.8%, 통신 1.6%의 순이다.

〈표 4〉 ICT 세부업종별 신규투자금액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4	2015	2016
대분류	중분류			
ICT제조 (4.5%)	반도체/전자부품 (38.1%)	1,322	691	365
	컴퓨터/주변장치 (9.9%)	107	74	95
	통신방송장비 (40.4%)	471	674	387
	영상음향기기 (11.7%)	51	24	112
	소계 (100.0%)	1,951	1,463	959
ICT서비스 (18.9%)	통신 (1.6%)	3	85	65
	소프트웨어 (59.6%)	1,441	2,281	2,420
	정보서비스 (38.8%)	469	1,653	1,577
	소계 (100.0%)	1,913	4,019	4,062
ICT합계 (23.4%) [ICT제조+ICT서비스]		3,864	5,482	5,021
게임 (6.6%)	게임 (92.0%)	1,755	1,583	1,313
	스포츠/여가 (8.0%)	7	100	114
	소계 (100.0%)	1,762	1,683	1,427
ICT합계+게임 (29.5%) [ICT제조+ICT서비스+게임(스포츠/여가 제외)]		5,619	7,065	6,334
총합 (100.0%)		16,393	20,858	21,503

출처: KVCA YEARBOOK(2017), 괄호안은 '16년 기준 비중

(2) 벤처캐피털 투자기업 재무상황

2016년 기준, 벤처캐피털 투자기업들의 평균매출액은 77억 4천만원, 평균자본금은 10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ICT서비스 및 게임의 평균매출액은 각각 38억 4천만원, 22억 9천만원으로 타 분야 대비 영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벤처캐피털 투자기업 재무상황

(단위: 억 원)

구분	평균매출액		평균자본금	
	2015	2016	2015	2016
ICT제조	218.2	144.4	18.9	12.3
ICT서비스	36.2	38.4	9.9	9.1
전기/기계/장비	179.2	107.4	20.4	10.8
화학/소재	284.4	310.4	11.6	20.4
바이오/의료	89.5	48.2	19.7	12.9
영상/공연/음반	47.1	52.4	2.8	6.9
게임	34.3	22.9	5.6	4.1
유통/서비스	112.9	70.4	13.0	7.2
기타	194.6	94.5	40.2	17.8
합계	103.6	77.4	13.3	10.3

출처: KVCA YEARBOOK(2017)

(3) 회수시장

회수유형 중 장외거래(주식, 채권 매각/상환) 비중이 높은 가운데 '16년 IPO 비중은 '15년 급증 이후 유지된 반면 M&A 비중은 증가했지만 M&A를 통한 회수는 여전히 부진하였다.

〈표 6〉 회수유형별 비중

(단위: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IPO	23.2	17.2	17.1	15.7	14.2	18.1	17.8	15.7	18.0	27.2	27.1
M&A	4.7	2.6	5.9	7.1	4.9	1.5	1.0	0.3	2.1	1.5	3.1
프로젝트	16.5	17.7	23.2	16.4	23.7	18.5	22.4	23.6	21.0	15.7	18.5
주식매각/상환	42.8	48.4	40.5	45.3	39.1	43.8	38.9	34.6	39.4	36.5	36.5
채권매각/상환	12.8	14.1	13.3	13.9	17.1	17.5	17.1	15.0	16.7	15.8	10.0
기타	-	-	-	1.6	1.0	0.6	2.8	10.8	2.8	3.3	4.8

출처: KVCA YEARBOOK(2017)

2016년 IPO 밸류에이션(Valuation)은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이 1,736억원, 미투자기업이 1,504억원으로,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의 가치가 약 1.16배 높았다.

〈표 7〉 연도별 IPO Valuation

(단위: 억 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VC투자기업	442	652	583	761	935	1,157	611	908	978	1,595	1,746
VC미투자기업	552	575	521	963	832	869	761	824	893	755	1,504
VC투자기업/ VC미투자기업	0.8	1.13	1.12	0.79	1.12	1.33	0.8	1.1	1.1	2.11	1.16

출처: KVCA YEARBOOK(2017)

전체 IPO 소요기간은 '15년보다 2년 감소한 11.4년을 기록하였다. '16년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의 IPO 소요기간은 평균 13.1년으로 미투자기업의 평균이 8.8년보다 긴 것이 특징이다.

〈표 8〉 IPO 소요기간

(단위: 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VC투자기업	7.9	8.7	8.6	10.7	11.5	12.5	11.3	11.9	13.4	12.9	13.1
VC미투자기업	11.5	15.5	17.2	12.0	13.1	14.1	13.9	19.9	15.7	15.4	8.8
전체	9.0	10.7	11.1	11.3	12.2	13.0	12.2	13.8	14.2	13.4	11.4
VC투자기업/ VC미투자기업	0.69	0.56	0.50	0.89	0.88	0.89	0.81	0.60	0.85	0.84	1.48

출처: KVCA YEARBOOK(2017) (원자료: 한국거래소)

3. 미국과의 비교분석

국내 벤처캐피털 투자의 경우, 증가세를 보이던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는 '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감하였고, 다시 초기기업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최근에는 30% 대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067년에 36.3%를 차지했던 초기기업 투자 비중이 '13년 57.0%로 크게 증가한 이후 '16년 44.5%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으로 우리나라와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9〉 한국과 미국의 초기기업 투자 비중 비교

(단위: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30.3	36.8	40.1	28.6	29.3	29.6	30	26.7	30.8	31.1	36.8
미국	36.3	39.6	40.7	43.3	46.9	52.0	53.4	57.0	54.3	54.9	44.5

출처: KVCA YEARBOOK(2017), NVCA YEARBOOK(2017)

주: 미국은 업력에 따른 분류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본고의 데이터는 'seed stage'와 'early stage'를 합한 수치를 사용, seed stage는 설립 후 제품 혹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 early stage는 제품이 상용화되었지만 본격적인 수익이 발생하기 이전의 단계를 의미

ICT 분야 중에서는 특히 소프트웨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 비중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체 투자액 중 소프트웨어

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대비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 10〉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비중 비교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狹義의 SW ¹⁾	5.5	7.4	3.2	4.2	5.0	5.5	8.1	8.8	10.9	11.3
한국 廣義의 SW ²⁾	14.4	12.8	13.9	15.7	14.7	16.6	16.8	22.4	26.5	24.7
미국	20.0	20.0	19.7	22.5	25.2	31.3	37.3	43.0	39.8	47.7

출처: KVCA YEARBOOK(2017), NVCA YEARBOOK(2017)

주 1: 협의의 SW는 KVCA 중분류 중 SW만을 의미

2: 광의의 SW는 KVCA 중분류 중 SW, 정보서비스, 게임을 합한 수치, KVCA의 정보서비스는 통신장비수리업 등 일부 SW로 볼 수 없는 업종도 포함함에 유의

3. 결 어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을 요약하면, '16년 벤처캐피탈 신규투자는 여전히 증가세였지만 그 증가폭은 전년대비 24.1%p 감소해 수년간의 급증 추세는 한풀 꺾이는 양상이다. 업종별로는 바이오/의료 분야가 21.8%, 업력별로는 초기단계 투자가 3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ICT 제조 및 서비스는 전체 신규투자액의 23.4%를 차지하였고, 게임을 포함할 경우 ICT 분야의 비중은 29.5% 수준까지 증가한다.

지난 10년간의 벤처캐피탈 투자를 살펴보면, 국내 ICT 분야 벤처캐피탈 투자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투자 분야도 다양해졌다. 벤처캐피탈 투자의 확대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액 비중은 0.08%를 기록해 OECD 국가들 가운데 5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은 자금 투자 및 회수시장이 활발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또한, 미국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초기기업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OECD(2016),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6』.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17. 6), 『2017 KVCA Yearbook & Directory』.

NVCA(2017), 『NVCA YEARBOOK 2017』.